

[나답게, 독일답게!]

Q. 안녕하세요, ** 씨. 오늘은 독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고 들었어요.

A.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2학기에 독일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 대학교에서 4학년 1학기를 보낸 박**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Q.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교환학생 나라 중 독일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국어국문학과가 주전공이지만 3학년부터 독일지역학을 전공하면서 독일어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독일어와 독일이라는 나라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들의 일상에 들어가 살아보고 싶어져서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책에서만 보던 언어를 현지인들과 지내면서 활용해보고, 미래에 독일에서 살 생각도 있었기에 독일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이 저와 맞는지 체험해보고 싶었죠.

Q. 그렇군요! 가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A. 우선 파견될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과 항공편, 기숙사 신청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세 개가 결정되어야 그다음의 일들을 결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은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항공편, 기숙사 신청은 제가 알아봐서 해야 하는 것들이라 수시로 관련 사이트들을 들락거리며 정보를 모았어요. 항공편은 입학허가서를 받은 직후 왕복 직항 비행기 편을 90만 원에 예약할 수 있었고요, 기숙사도 여러 블로그들에 있는 정보를 모아 신식인 기숙사로 신청하였어요.

한편으로 자금마련 또한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저는 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신청했어요. 슈페어콘토란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학업비 및 생계비를 미리 입금해놓을 수 있는 계좌예요. 이 계좌에 체류 기간 동안 쓸 돈을 넣어두면 현지 계좌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서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슈페어콘토 덕분에 독일에 와서 과소비하지 않고 달마다 일정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독일어 수준을 B1 레벨까지 끌어올렸어요. 일상회화가 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가서 배울 것도 있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또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군요. 이렇게 준비를 한 만큼 실제로 독일에 갔을 때는 남다른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막상 갔을 때 어떤 점이 새로웠는지 궁금해요.



A. 네, 저에게는 정말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국과 가장 다르다고 느낀 부분은 바로 열쇠문화였어요. 기숙사에서 열쇠를 사용했는데 한국의 도어락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부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깜빡해서 룸메이트가 문을 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마저도 룸메이트도 밖에 있는 날이면 그때까지 룸메이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이런 일이 몇 번 있고나서는 제 몸처럼 가지고 다니게 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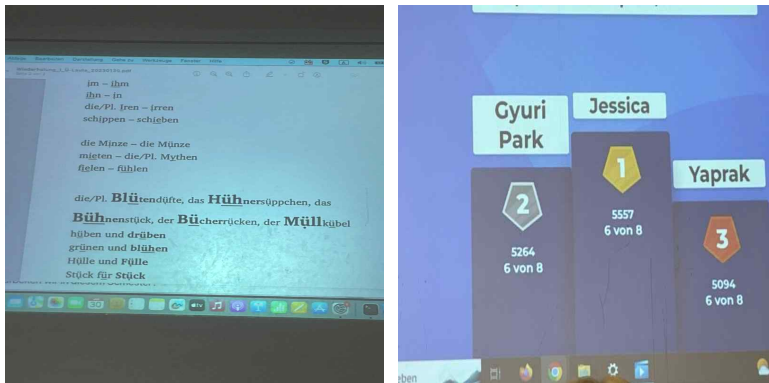
이외에도 외식물가가 비싸서 웬만하면 요리를 직접 해 먹어야 했는데요. 한국에서 제대로 요리해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어요. 처음에는 계란 프라이만 겨우 하다가 나중이 되어선 파스타, 제육볶음, 오코노미야키, 크노 델(독일의 감자요리) 등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김치를 좋아하는 독일 친구와 김장까지 담갔답니다! 인생 첫 김장을 독일에서 한 거예요.(웃음)

요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면에서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독일은 주거, 문화, 행정 등 모든 게 한국과는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해내 나가는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동안 '못한다'며 은연중에 포기했던 일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독일에 있으면서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Just try it.'이라 말하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방향으로 성장을 하신 거네요. ** 씨는 독일 예나(Jena)라는 도시에서 지내셨다고요? 다른 독일 도시들에 비해서는 생소한 이름인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예나는 독일 튀링겐 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대도시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

이라 ‘학생 도시’라 불리기도 해요. 많은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하고요. 무엇보다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 대학교(이하 예나 대학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러, 괴테가 강사를 했던 학교로 독일 문학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또한 예나 대학교는 독일 내에서 어학 프로그램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곳에서 양질의 독일어 수업을 받을 수 있죠. 독일어와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최고의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이 받았던 수업은 바로 음운학 수업이었어요. 독일어는 음운의 장단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장단음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소통을 할 때 어려움이 종종 있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통해 발음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후 독일어를 구사할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수업이 나누어져 있어 비슷한 레벨의 친구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수업들이 있어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점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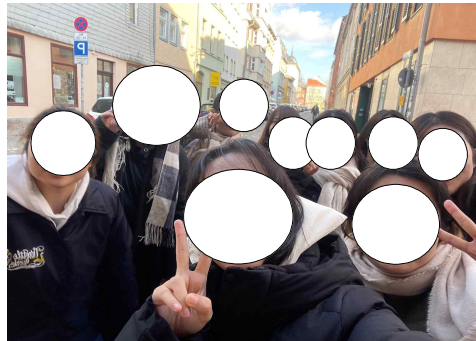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예나에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슈탐티쉬(Stammtisch)’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슈탐티쉬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주 1회 정도 만남을 가지고 교류하는 모임을 말하는데요. ‘International Stammtisch’는 각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모이는 모임, ‘Korea Stammtisch’는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나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슈탐티쉬가 개최되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과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따로 약속을 잡거나 매주 얼굴을 보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현재 K-pop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매주 슈탐티쉬에 방문했고 저는 그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독일어를 알려주기도 하고, 저도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기도 하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물론 서로의 언어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전달할 때 애를 먹는 순간들도 종종 있었지만 서로의 진심이 통

했달까요.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던 이 시간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정말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돌아와서는 독일 슈탐티쉬에 참여하면서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Q. **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친구분들과 함께 한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교환학생에 가기 전 인간관계, 즉 친구 사귀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씨도 그런 걱정이 있었나요?

A. 네, 당연하죠. 저도 가기 전에는 적응을 못해서 독일에서 혼자 다니는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마음가짐만 있으면 친구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과는 더욱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다양한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온 거거든요. 다들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먼저 인사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본 친구들이 같은 수업을 많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짧은 일본어로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었는데요. 마침 일본 친구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다 같이 요리를 나눠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교환학생 생활 동안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대부분 독일을 떠올렸을 때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무뎡뎡하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편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갔었는데요. 9월 말에 독일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렇게나 많은 축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옥토버페스트, 카니발, 크리스마스 마켓, 실베스터, 거기에 다양한 지역축제들까지! 크고 작은 축제들을 즐기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독일 사람들은 정말 축제에 진심이었어요! 매번 축제에 올 때마다 '대체 누가 독일이 노잼이라는 거야?'라며 친구들과 감탄하기에 바빴죠. 심지어는 WG 파티(기숙사에서 열리는 파티)도 달에 한 번씩은 꼭 열어서 그곳에 가서 독일의 파티문화도 배울 수 있었어요. 떠날 때 즈음에는 어느새 제가 WG파티의 개최자가 되어있더라고요. ㅎㅎ 저는 교환학생을 가기 전 목표가 독일어를 많이 말해보는 것이었고, 그들의 문화를 몸소 느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독일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 독일어 실력이 저도 모르게 정말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발음, 문장구조, 문법의 정확성을 생각하느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에 한참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우선 단어를 말하고 보는 소통 위주의 회화법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한다면서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독일어나 영어를 말할 때 뜻만 잘 전달을 하면 결국 소통이 된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채팅할 때나 대화할 때 쓰는 말들을 따라 하면서 직관적으로 상황에 맞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책 속의 독일어가 아닌 생활 속의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점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친구들과 지내면서 우선 자신이 정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단 공부, 일, 스펙 쌓기 같은 한국에서 생산적인 활동이라 불리는 일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들은 친해진 지 얼마되지 않은 저를 파티에 초대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어떤 축제든지 같이 가자고 연락을 하고, 떠나는 저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었죠. 이제 막 친해진 저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 대외활동, 취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제 미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적이 많았고, 이마저도 휴학을 해서 남들보다 뒤져있다고 생각해 항상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주저 없이 뛰어들어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태도가 저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걸요. 저는 모든 독일인이 친절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독일에서 여러 좋은 친구들을 만나 본 덕분에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Q.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 씨는 독일이라는 나라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독일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적도 분명 있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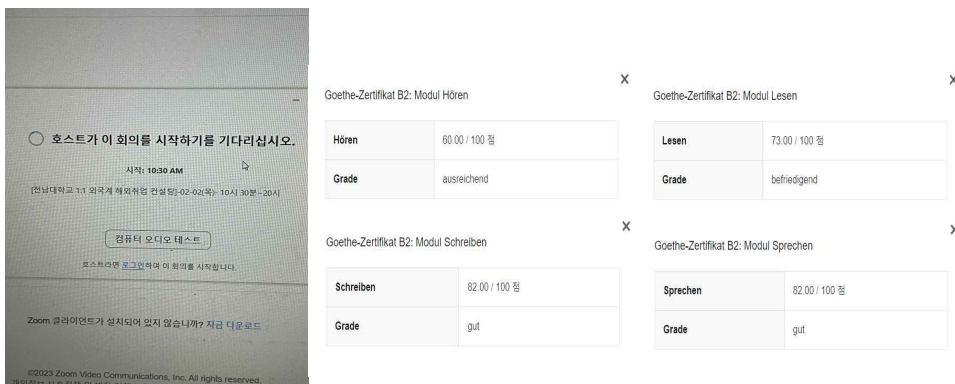
A. 물론입니다. 독일의 행정과 의료시스템이 가장 힘들었어요. 우선 비자 같은 경우 비자 예약만 8개월이 걸려서 결국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쉥겐조약의 효력이 끝난 후로는 해외여행을 다닐 수 없었어요. 또 독일에 있으면서 눈에 이상이 생겨서 안과에 갔는데 예약이 이미 6개월이나 차 있어서 진료를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10 통이 넘는 메일을 각 안과에 보낸 끝에 겨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눈에 망막 열공이 생겼더라고요. 늦게 진료를 받았으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조금 아찔하기도 한데요. 다행히 그 자리에서 레이저 수술을 받고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택배나 우편이 느리다는 게 불편했지만, 덕분에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해놓는 계획성과 참을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Q. 그렇군요. 이제 인터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초반에 ** 씨가 미래에 독일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일에 다녀온 지금 그 생각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A. 네. 저는 다녀오고 나서 더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Q.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나요?

A. 독일의 현재 사회가 제가 지향하는 사회와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독일은 친환경 정책과 녹색당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큼 환경보호를 위해 힘을 쓰고 있고,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예요. 대중교통에는 언제나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고,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기차에서 캐리어를 들고 끄끙대고 있을 때면 너 나할 것 없이 팔을 걸어붙여 도와주고 도로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먼저예요. 마트나 카페에서 점원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정답게 인사를 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점들이 독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에서 지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죠.



Goethe-Zertifikat B2: Modul Hören		Goethe-Zertifikat B2: Modul Lesen	
Hören	60.00 / 100 점	Lesen	73.00 / 100 점
Grade	ausreichend	Grade	befriedigend

Goethe-Zertifikat B2: Modul Schreiben		Goethe-Zertifikat B2: Modul Sprechen	
Schreiben	82.00 / 100 점	Sprechen	82.00 / 100 점
Grade	gut	Grade	gut

확신을 가지고 나서는 독일계 회사, 또는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어요. 독일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해외취업특강을 들으며 링크드인에 제 경력을 정리하고, 저에게 맞는 직무를 찾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휴학기간 동안 회사에 취직해 6개월간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취업 동아리, 취업특강,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 취업 시 무엇보다 중요한 어학능력도 착실하게 준비하였는데요. 그 결과 토익스피킹 IH레벨과 독일어 B2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에서 저는 제 자신과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달리기만 바꿨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 와서 혼자 부딪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제가 원하는 제가 되기 위한 길 위에 서있으니까요.

Q. 정말 교환학생 생활이 ** 씨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고민 중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A. 어떤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든 본인이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기로 결정 하셨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곳에 간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뭐든 시도해보세요!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최소한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로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알차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잘 지내고 온 것처럼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Q.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씨가 독일에서 멋진 결실을 맺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